

## 학생복지기금 5억여원 집행내역 공개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서... 운영위 참석 저조

회칙개정 30일 발의

2008학년도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동호 국어교육4, 이하 총운영위)가 지난 17일 재직 102명 중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관련 기사 4면

총운영위는 ▲보고안건 △학생후생복지기금 집행내역 △학생행사보조경비 집행내역 ▲논의안건 △총학생회 사업평가서 △총학생회 하반기 사업일정 △총학생회 공약이행 사항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예산안 △중앙특위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일정 ▲의결안건 △총학생회 회칙 개정 ▲기타안건 △총장 서면 공개 질의서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안건에서 강동호 위원장은 학생후생복지기금(5억1900만원) 집행과 예정 내역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중앙운영위 및 각 단대별 예산 분배 등과 CNU문화강좌와 강사비(2400만원), 정류장 비가림막 설치비(3000만원), 야외음악당 신축 설계비 지원(5000만원),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지원(2500만원) 등까지 총 4억9442만1000원의 집행 내역과 대운동장 본부 음향시설 및 조



지난 17일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하반기 총학생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이 학생회칙 개정에 비표를 들어 찬성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명보수, 2009년도 총선거 예비지 원비 예정 내역도 발표했다.

강동호 위원장은 "앞으로 대운 동장에서 진행될 이라제전을 준비 하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대운동장 행사를 위해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을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있을 학생선거에 있어 더 투명한 학생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약집 제작비를 지원할 예 산도 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 안건에서는 김형진 (체육학부4) 기획국장이 총학생회 간부학교, 출범식, 상반기 총운영 위, 4·3주간 행사, 대동제 등의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했으며 김현 수(응용생명자원공학3) 정책국장의 총학생회 공약 사항에 대한 발 표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김이현 (산업응용 경계 4) 사무국장이 총학생회 상 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예산안도 발 표했다. 대동제 등의 각 사업별 결산서와 대동제 진행시 받은 스 폰 내역에 대한 공개가 이뤄졌다. 이어 장애인인권 대책위원회의 사 업 계획서도 발표했다.

의결 안건에서는 총학생회 회칙 이 의결됐으며 개정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48조 임기 부분 개정,

52조 부속별 기능 부문 삭제, 105 조 보결선거 부분 변경, 111조 예 산관리 및 진행 부문 개정이 이뤄 졌다. 또 114조 공고 및 의결 부 문에서 '단, 회칙 개정의 긴급사 항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외 원충회로 바로 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강동 호 위원장 "현재 오래된 회칙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으 로 개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안은 오는 30일 있을 대의원총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박종기 기자

## 2009년부터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공편중 따른 학문 불균형 초래 때문

오는 2009학년도부터 대부분의 학부가 학과로 전환된다.

지난 1996년부터 정부의 대학 교육 구조개혁에 맞춰 학부제를 도입한 후 현재 11개 단과대학에 11개 학부 24개 전공, 46개 학과 가 설치됐다. 학부제로 전환할 당시 학생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 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도입했었 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 부의 '대통령초청대학총장간담회'에서 학부제 존폐를 각 대 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이 거 론되면서 대부분의 학부가 학과 제로 전환하고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부라는 대단위 모 집단위로 학생들에게 여러 학문 을 접해주려 시도됐었으나 실질 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현실에서는 학과군이나 학부가 성숙순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 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문의 유사성을 갖고 묶는다고 했으나 그다지 큰 학문의 유사성 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기학과인 경영학의 경우엔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 성적이 학 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학부생 1학년의 경우 소속감이 없거나 학과활동을 열심히 해 도 2학년에 들어서면 이는 선택 가 없는 학과로 배정받아 적응이

힘들다는 등 문제가 많았다.

반면 학과제로 전환하는 흐름 과 달리, 학부제로 전환하는 학 과들도 있다. 학부제로 전환하는 학과 관계자는 "특히 예술학부의 경우엔 인문대학 내에서 예술 쪽 으로 독창성과 특수성을 강화시 키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듯 보인다"고 답했다.

거의 모든 학부들이 학과제로 전환했다. 분명 학부제를 통해 얻었던 장점도 있었을 것이나 학 과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는 기대를 모 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부제의 존치를 떠나 학부제가 시행됐던 목적과 학부제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해

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의 방침을 충분한 고민, 검토 없이 수용해 발생한 문제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인규(해양과학대학 학부장) 교수는 "학부제에서 가장 큰 문제 는 소속감 결여에 관한 것"이라 며 "입학 직후 2학년 때 전공 을 선택해야 하는데 패턴이 맞지 않고, 저학년 때 경험했어야 할 성격문제, 선후배문제, 진로문제 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도 학과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특성화학부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 다. 강소진 기자

|                                                      |                          |
|------------------------------------------------------|--------------------------|
| 인문사회학부                                               | 생명과학 학과                  |
| → 사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 → 생물학과 화학학과              |
| 사회과학부                                                | 생활과학부                    |
|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                               | →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
| 경영·회계·경영정보학과                                         | 수학·전산통계학과                |
| → 경제학과, 무역학과                                         | → 수학과, 전산통계학과            |
| 이) 관광경영·관광개발학과                                       |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
| → 이)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 → 기시스템공학부, 에너지공학과        |
| 이) 경영·회계·경영정보학과                                      | 통신컴퓨터공학부                 |
| → 이) 경제학과, 무역학과                                      | →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 음악학과, 미술학과                                           | 식품생명·생명화학공학부             |
| → 제주대 예술학부                                           | → 식품생명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
| 해양과학부                                                | 전기전자공학부                  |
| → 해양의생명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산업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과     |
|                                                      | → 건축공학전공, 건축디자인전공        |

## 수시모집 경쟁률 2.3:1

693명 모집에 1626명 지원

200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 서접수가 지난 16일부터 4일간 진 행된 결과 총 693명 모집에 1626명 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 였다. 이는 지난해의 경쟁률인 2.2 대 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정원 내 일반전형은 164명 모집

에 617명이 지원해 3.8대 1, 학교 장추천자전형은 109명 모집에 264 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로 총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정원 외 농어촌 선발, 기회균 등 선발 등은 270명 모집에 438명 이 지원해 1.6대 1의 경쟁률로 마

감됐다.

자연대 식품영양학과는 3명 모집 에 21명이 지원해 7대 1의 가장 높 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사범대 영 어교육과는 3명 모집에 12명이 지 원, 의과대 간호학과는 9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해 각각 4:1의 경쟁률 을 기록했다.

통합 후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 하게 되는 교육대학은 32명 모집에 96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강소진 기자

## 교수회장에 강민수·고경표 교수 경합

25일 오전 국제교류회관에서 소견발표

제3대 교수회장 선거가 25일 국 제교류회관 대회의실 및 사라캠퍼 스, 제주대병원 등에서 치러진다. 후보자로 나선 기호 1번 강민수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교수와 기호 2번 고경표(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는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치열한 접전이 예 상돼 1차 투표 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못 얻을 경우 2차 투표가

지 치러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사라캠퍼스 국제교류회 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소견발표와 별도로 이날 오전 9 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사라캠퍼 스 소속 교원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대학 교원은 사라캠퍼스 교수회의실, 의과대학 임상교수는 제주대병원 회의실에 서 투표가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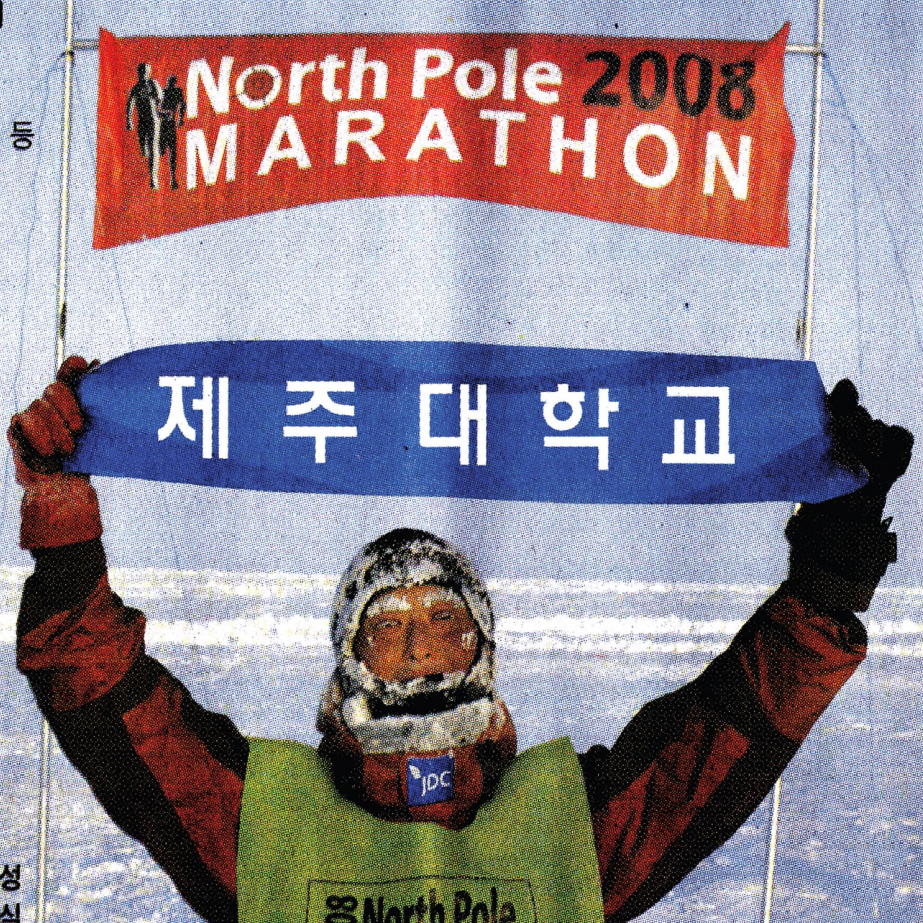
이번 선거는 제주대 소속 교원 562명 중 휴직자와 장기파견자 29 명을 제외한 총 533명의 직접 투 표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 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2차 투표일을 정해 결선투표 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출된 새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2010년 10월말까 지다.

정용복 대기자

### '제3창학'으로 "전국 명문 대학 20위 진입"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 500병상 제주대학교 병원 완공,  
2008년 3월 제주교대 통합, 메디컬스쿨 개원, 수의과대학 신설 등  
제주대학교는 새로운 식구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North Pole 2008 MARATHON

한국인 최초 5대 극지마라톤 그랜드슬램 달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안병식

### 2009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2학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 : 2008. 9. 16(화) 09:00 ~ 9. 19(금) 17:00까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uway.com>)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 : 2008. 10. 6(월) 09:00 ~ 10. 10(금) 18:00까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uway.com>)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 : 2008. 10. 13(월) 09:00 ~ 10. 17(금) 17:00까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http://applybank.jinhak.com>)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cheju.ac.kr>) 참조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장애인 주차장에 차대는 암체족 반성을

비장애학생들 주차에 장애학생 불편호소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해야

아라캠퍼스 '학내를 거닐다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잠깐만 주차' 행동이 이곳을 진정 필요로 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아라캠퍼스 1만 4917명 중 46명의 학생이 장애인 학생이다. 그들 중 자동차로 등하교하는 학생은 14명.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비장애인으로 인해 정작 이 곳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학생들은 이용할 때 마다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곳

은 법정대, '학생회관, 교양동 등이다.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행정학과 2)학생은 "법정대 정문 쪽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비장애인 학생이 주차를 할 때 휠체어로 이동하는 공간(경사로)에 가깝게 해, 나갈 틈이 없어 불편한 적이 많다"며 "이럴 땐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해 수업시간에 늦을까 늘 조마조마하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 차량과 이동지원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곤 하는데 정작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세우지 못한

관계자는 "학내 장애인 학생들 중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14명인 것을 감안할 때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다"며 "또 각 단과대의 경우 해당학생들이 졸업하면 주차공간이 남게 되므로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주차상태에 대해 "학생들이 주차문화를 잘 몰라 무의식적으로 주차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학생회관 뒤쪽이 특히 심한 듯 보이는데 이 때문에 주차장을 다른 곳에 다시 시공해야 했다"고 말했다.

학내 장애인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마저도 힘들면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잠깐만 주차'에 오늘도 장애인 학생들은 공간(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빼앗긴 채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수업에 늦을까 걱정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강소진 기자

## “직원에게 총장선출권 확대해야”

공대위 11일 발족... 결의문 채택



지난 11일 총장선출권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총장선출권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문규, 공동위원장 김태성, 대의원 조준호, 이하 공대위)가 지난 11일 발족했다.

공과대학 3호관 강당에서 진행된 발족식에는 공동위원장의 회장을 비롯해 대학 내 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해 직원의 총장선출권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총장 임용후보자선출 규정 개정 과정에서 우리직원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총장선출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 위한 민주적인 방법의 요구를 교수회에서 묵살

해 왔다"고 전달했다.

이에 공대위는 앞으로 합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총장선출관련 모든 사항은 무효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모두 원천 봉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 초안 중 '교수지원과 규정초안 중 제6조(선거권) 제2항 단서조항 삭제·다만, 위원회는 직원의 참여비율 등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원단체와 협의의 거쳐 따로 정한다' 조항을 무시한 점, 직원단체와 합의 없이 규정 개정을 공표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공대위는 전 총장선거 시 직원의 기존의 투표비율(1차 10%, 2차 7%, 3차 3%)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을 직원 대표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하며 그 개정안을 규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교수회에 공문으로 요구했다. 박종건 기자

## 아라캠퍼스 등교버스 부족... 통학불편

만원버스 정류장 지나치기 일쑤

학생용 통학버스 검토해야

아라캠퍼스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의 수요를 시내버스가 다 채워주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아라캠퍼스 학생들이 첫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로 향하는 시간인 아침 8시 30분경부터 9시까지는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아 일부 버스는 시청 부근부터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구제주에서 아라캠퍼스로 향하는 버스와 신제주에서 아라캠퍼스로 향하는 버스 모두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울상을 짓는다.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만원인 버스를 용케 비집고 탄 경우에도 문에 끼이지나 앞을 가려 걱정될 정도로 위험하게 타고 가게 된다.

이슬비(행정학과 4)학생은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새벽같이 버스를 타서 학교에서 잠을 잔다"며 "시내버스와 달리 여류 공

간이 많아 보이는 아라캠퍼스 출퇴근 버스를 몇 번 은근슬쩍 탔으나 눈치가 보여 몇 번 타고 관했다"고 말했다.

아라캠퍼스 출퇴근 버스는 9월부터 4대가 구제주와 신제주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지금 출퇴근 버스는 아라캠퍼스의 600명의 교직원들만을 위한 것이며 출퇴근 버스를 학생들에게까지 개방하기에는 현재 교직원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량 2부제의 영향이라는 설명이었다. 아침에 아라캠퍼스로 향하는 시내버스 공급이 적어 자주 버스가 만원이 되는 현상에 대해 "특정 시간 대 시내버스의 증편은 학교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시민)가 시장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는 통학시간이 2~3시간이나 되어 통학버스가 꼭 필요하고, 통학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학생집결장소가 뚜렷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기에 이점이 있지만 제주도는 학생들의 주거지와 대학사이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원한다면 총학 측에서 학생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분담방안을 협의해 총무과로 건의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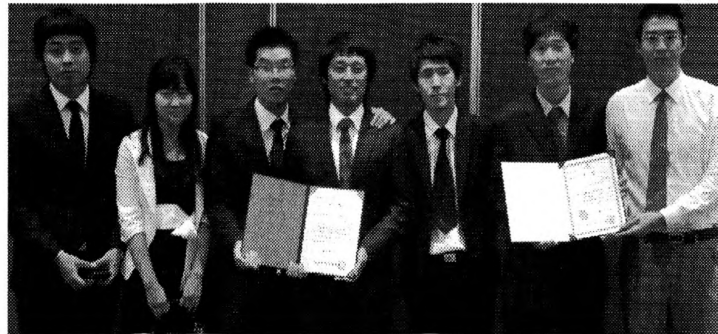
이에 대해 고덕훈(사회학과 1)학생은 "학교에 올 때 버스를 환승해서 타고 오는데, 통학버스가 운행된다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같이 탄다고 해도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라캠퍼스의 경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버스를 학생에게도 개방해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시내버스 사용량을 분담하고 있다. 한라대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일정버스사용금액을 받으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지난 4월부터 무료로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용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정 수습기자

## e-러닝 UCC 경진대회 제주대가 석권

언론홍보학과 주현식 팀 대상, 김태한 팀 최우수상



지난 10일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된 '2008 지식경제부 장관배 이러닝 UCC경진 대회'에서 제주대학생들이 수상하고 있다.

제주대 학생들이 지난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2008 지식경제부 장관배 이러닝 UCC경진 대회' 시상식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휩쓸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주최로 이뤄진 이번 대회는 이러닝의 국가적 확산과 창의적 이러닝 개발 및 조성을 위해 주최했다.

대상은 주현식(언론홍보학과 4) 백영훈(언론홍보학과 4) 신예성(언론홍보학과 3) 양길(언론홍보학과 2)학생이 '버나트 천국'이라는 제목의 UCC로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상금 300만원). 대상작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소중함을 재인식한다는 소재를 갖고 주인공 '로미오'가 산배 '하루'를 만나며 생각하게 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를 주위에 인식시키는 내용이다.

또 김수현(국문학과 4) 김태한(언론홍보학과 4) 우수호(언론홍보학과 4)학생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인 전자거래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상금 100만원). 최우수상작은 제주 4·3 당시의 잃어버린 마을인 '곤돌'을 소재로 해, 주인공 송호가 곤돌을 찾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겪게 되는 일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강소진 기자

## 아라캠퍼스 단신

여자 육상팀 전국대회 7연패 달성

제주대 여자육상팀이 제62회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점수 72점으로 여자대학생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육상팀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종합우승 7연패를 달성하며 큰 명예를 안았다.

경북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오정준(체육 1)학생은 100m와 200m경기에 출전해 각각에서 1위,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이지연(체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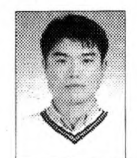
학생은 400m 허들에 출전해 1분 04초 4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채윤정(체육 4)학생은 세단뛰기와 멀리뛰기에서 은메달을, 정선아(체육 4)학생도 7종 경기에서 3102점을 획득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남자 대학부에 출전한 김선길(체육 1)학생은 5000m 동메달에 이어 1만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번 육상팀을 이끈 이창준(체육부)교수와 임관철(육상부)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강소진 기자

이현주씨 등 4명 공인회계사 합격



이현주 씨



이선우 씨



이은식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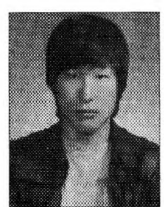


홍영글 씨

제43회 공인회계사 및 44회 세무사 시험에 제주대 출신 4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이현주(25 회계학과 2005년 졸) △이선우

(29 회계학과 2007년 졸) △이은식(26 회계학과 2008년 졸) △홍영글(26 경영학과 2008년 졸)

전진수 학생 전국수영대회서 4관왕



수영장에서 개최된 제57회 장애 전국수영대회 다이빙분야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해 4관

왕으로 등극했다. 전진수 학생은 남자대학부 1m 스프링과 플랫폼다이빙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권일근(체육 2)학생과 호흡을 맞춰 3m 싱크로와 플랫폼싱크로에서도 1위에 올랐다. 또 권일근 학생은 플랫폼다이빙과 3m 스프링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강소진 기자

송왕철 교수, 세계인명사전에 등재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2009년 판에 등재된다. 송 교수는 최근 3년간 9년의

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색인(SCIE)논문을 발표했으며, 정책기반 네트워크 등에 관한 국내논문 5편 등을 발표하는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송 교수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에서 공학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6년 3월 컴퓨터공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강소진 기자

## 교수학생 하나되어 공모하고 수상까지

전성수 교수팀, 2008 레드닷어워드서 3작품 모두 수상



Prof. Jeon Sung-Su, Heo Seong-Ryul, Kim Hyun-Mi, Lee Tae-Hoon

세계 3대 디자인대회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2008레드닷 어워드' 공모전에서 산업디자인학과 전성수 교수팀(전성수 교수, 김기필 교수, 구지운 시간강사, 허성을(2006년 졸업)·김현미(4년)·이태훈(3) 학생으로 구성)이 출품한 3작품 모두가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작품상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입체형 자동차 계기판 △차량용 비차단막 △절약형 용기이다. 이

작품들은 제주의 옴, 자갈과 같은 부드러운 자연의 곡선미를 바탕으로 제주의 비가 많은 기후, 급은 도로의 지형 등을 감안해 착안했다. '이는 탁월한 미적 감각과 함께 실용성까지 갖춘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 결과로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해 레크레이션 부분 1위에 이어 올해 출품한 3작품 모두가 컨셉트 부분에서 작품상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대회

수상 실적을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작품의 구상부터 구현까지 함께 이뤄낸 점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작품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준비됐으며 제주문화재단에서 누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진행됐다.

전성수 교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과 함께 세계적인 대회의 작품 공모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학생은 "이번 공모전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디자인을 만들며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며 "수업시간을 넘어 더욱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종건 기자

## ‘재일제주인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

탐라문화연구소 주관

‘재일제주인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가 지난 5일 국제교류관에서 열렸다.

오사카 제주도연구회가 주최하고 탐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0만 재일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재일 제주인들의 삶을 조명,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강연회는 오사카 제주도연구회 양영후 대표(전 관서대학교 교수), 신재경 사무국장(창성대학교 교수), 이철지 노리코(에히메대학) 교수가 재일제주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을 설명하며 이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영후 대표는 오사카 코리아타운(구 이카노)의 여제와 오늘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며 구 이카노에 거주하던 제주인들의 생활의 모습 및 가치관에 대해 설명했다. 양영후 대표는 "최초 도일한 제주인에 관한 근거를 찾아내는 등의 재일제주인의 역사에 관한 발자취 조사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세대교체가 되면서 귀화한 재일제주인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 다음,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29일 오전 10시 공과대서 취업상담회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매해 신입사원의 일부를 제주대 출신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커뮤니케이션 관련 의사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공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강소진 기자

기로 했다. 이날 열린 채용 상담에서는 서비스기획, 영업, 마케팅 협찬 및 후원, 경영관리 부문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의사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공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강소진 기자



# 사라캠 정문앞 무단횡단 “사고 걱정돼”

## 보행자 편의 위해 통행체제 바뀌야

### “횡단보도 준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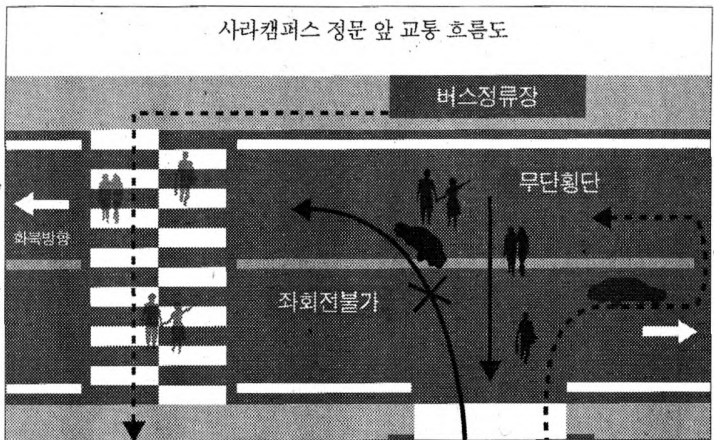
오전 8시 50분경 사라캠퍼스 앞 도로. 9시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버스에 내리자마자 무단횡단을 하여 화교정문을 향해 달려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아침의 무단횡단 풍경은 몇 년째 끊이지 않고 아침마다 벌어지는 현상이다.

사라캠퍼스의 김수련(윤리교육 3) 학생은 “나도 아침에 가끔씩 무단횡단을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위험하고 민망하다”면서 “주민들의 시각도 별로 안 좋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들도 무단횡단이 위험하고, 주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길을 건너 제 때에 버스를 잡거나 수업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동선이 짧은 곳을 이용해 건너게 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한다고 말한다.

사라캠퍼스 교무과 관계자는 “아침에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질서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점선으로 표시된 바른 경로 대신 실선으로 표시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전담 담당자는 “지금의 횡단보도 위치는 양쪽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일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횡단보도를 위로 옮기게 되면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라캠퍼스 내에서 도로를 향해 좌회전이 되지 않아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캠퍼스 내에서 화북 쪽으로 가려할 때 좌회전이 되지 않아 위쪽까지 도로를 타고 올라가 유턴을 하여 내려와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 전담 담당자는 “학교 안에서 도로 밖으로 좌회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차로로 운영해야 하지만 이 지역이 과속지역이라 교차로로 하기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교차로로 운영하려면 학교 안에서 도로로 나오는 통행량이 많아 하지만 이 지역은 등교, 하교 시간에만 잠깐 교통량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 신호시 좌회전은 풀 수 있으나 그 이외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불과 30m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나 학생의 질서 의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사라캠퍼스 정문 앞 무단횡단 문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 모두의 관심뿐만 아니라 더 나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수습기자

### 9월 외국인 말하기 대회

#### 국어문화원 주최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다음달 9일 국제교류협력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제2회 전도의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한국어에 능통한 조선족은 제외된다.

시상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으로 나누어 수여되며 총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인문대학 2층 8204호)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참가 서류는 신청서 1부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064-754-2712, 이메일 hall2712@cheju.ac.kr로 하면 된다.

김규정 수습기자

# 학생회 재정투명 위해 회계프로그램 도입해야

## 감사평가 기준 불명확한데다 간이영수증 남발

### 대의원회 상반기 감사결과 공개

바른소리 대의원회(대의원의장, 홍석찬 토목환경 4)가 2008년도 상반기 감사평가를 이달 초 마무리하고 각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 상반기감사는 대의원회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상섭 정치외교 3)가 시행했다. 지난 7월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감사평가 △7일=대의원회, 경장대, 사법대, 의과대 △8일=동아리연합회, 자연대, 생명대, 야간강좌부 △9일=총학생회, 인문대, 해양대, 법정대 △10일=총학생회, 공과대, 장애인인권위, 졸업준비위, 수의과대 순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홍석찬 의장은 “각 기관 및 단체 게시판에 감

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회계장부 양식을 공지했으며 감사평가 자료와 평가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으로는 공약감사, 사업감사, 회계감사 및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번해 감사에서는 지난해 1점당 1만원의 예산 삭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또한 지난해에 이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감사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항목마다의 지적사항과 벌점 채점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또한 간이영수증의 과다사용에 대한 지적과 체계적이지 못한 회계 감사를 바꿀자는 방법에 대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동욱(회계학과 학과장) 교수는 “현재 대학 및 여러 기업에서는 회계 감사프로그램을 사용해 간편하고 정확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회에서도 더 투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표준화된 회계양식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섭 감사위원장은 “현재 세칙에 제시된 회계감사부문에 더욱 정확한 감사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오는 30일 있을 예정인 대의원 총회에서 현재 모호한 부분의 감사 기준을 명확하게 체계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하반기 대의원총회 및 감사에도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 영국 스완지 대학과 업무협약

### 공동프로젝트 수행

제주대와 영국 Swansea 대학이 지난 3일 영국 웨일즈 스완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로 Swansea 대학으로부터 첨단산업단지 내에서의 대학역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양 대학 간 공동프로젝트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에 따라 앞으로 제주대 인근에는 2011년까지 33만평 부지의 IT 및 BT 분야의 교육과 연구, 창업기능이 결합된 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다.

제주대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하이테크진흥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협력거점 구축해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주변 과학단지와의 연계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 및 확산과 활용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 교수회장 임후보자 소견서

#### ◇ 기호 1번 강민수(동물생명자원전공) 교수

## “국립대법인화 저지 총력… 학내문제 해결 책임자”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대 교수회장 임후보한 기호 1번 강민수입니다.

우선 지난 2년 가까이 교수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기 교수회를 책임져 온 저로서 다시 교수회장으로 출마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나아가 교수님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교수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우리 대학의 지속적 발전과 큰 도약을 위해 교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금번 제가 교수회장으로 다시 임후보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해결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저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 때문입니다. 둘째는 학내에 산적한 갈등과 문제해결에 제가 최적임자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기초탄 다져온 교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출발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3기 교수회장 임후보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교수회를 이끌겠습니다.

1. 우선적으로 국립대 법인화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될 경우 현재의 국립대는 설립자만 국가일 뿐 기존의 사립대학처럼 민영화되어 (가) 정부지원금은 매년 감소되고, (나) 교직원 신분은 교육공무원에서 법인으로 변질되며, (다) 지방 국립대는 점차 도립화 혹은 사립화 될 것이며, (라) 수익성을 올린다는 미명하에 기초학문, 보 호학문 분야는 폐지될 것이고, (마) 재정 자립을 위해 등록금은 사립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될 것 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 교수회장 임후보한다면 교수회 1대 2대에 걸쳐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활동해 온 제가 앞장 서서 결단코 국립대학 법인화를 막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2. 교수님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내적으로도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논란에서 보듯이, 교수님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즉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인사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본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학내적으로도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논란에서 보듯이, 교수님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즉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인사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본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며 발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교수회와 여 교수회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교수회는 여교수회의 여러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제도, 시기, 예산 등의 이유로 뜻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 교수회 관련 규정 정비, (2) 교수회 활성화 위한 예산 확보, (3) 교수회 발간, (4) 대학 본부의 정기적 대화 채널 구축, (5) 대학 교수현안 집담회 정례회 및 활성화, (6) 교수 체육대회와 확대 개최, (7) 예결위 상설화 등 평의회 활성화, (8) 교수회 각 분과 위원회의 활성화, (9) 단과대학 교수회의 활성화, (10) 여교수회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화, (11) 교내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화, (12) 교수 취미 동아리 활동 활성화, (13) 교수 상조회 활성화, (14) 신입교수와 정년퇴임교수 간담회 효율적인 운영, (15) 교수 등반대회의 활성화, (16) 대학 정문의 예술성 및 규모의 업그레이드 등

이상에서 중요하면서도 원칙적인 내용들만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만약 교수회장 임후보된다면,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반성적 성찰을 통해 얻은 통찰과 보람을 기본으로 하여 교수회와 대학 발전에 관한 크고 작은 구상들을 폭넓게 구체화하고, 교수님들과 문제를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완성을 따져 반드시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회에 필요한 것은 외유내강형의 행동하는 리더로서, 교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확실히 헌신할 수 있는 강민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기호 2번 고경표(무역학과) 교수

## “교수회 위상정립 최선… 안정적 예산 확보 주력”



존경하는 교수님!

2학기 시작과 더불어 교육과 연구에 분주하신 교수님들께 교수회장 출마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과거 1980년대 민주화의 열풍이 불 때 교수협의회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늘 고민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4년 전 대학의 자율성에 관심이 많은 여러 교수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공식 교수회가 출범하였을 때 저는 마땅히 그랬습니다.

당시 임의단체였던 교수협의회와 대학의 공식 대의기구였던 평의회를 통합해 어렵사리 교수회를 대학의 공식기구로 출범시키는데 앞장섰던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대학의 공식기구인 교수회 출범 4년의 활동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고, 교수회의 현실적 위상과 역할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총장선거를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며 교수회에 대해 심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수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란, 첫째, 교수회의 우선적인 기능은 비판과 견제입니다.

둘째, 대학의 예·결산 등 대학정책의 심의기능입니다. 셋째, 교수들의 교권과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교수회 기능과 역할을 상기해 볼 때 우리 교수회의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는 이러한 교수회의 현실적 실체를 목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며 대학에 봉직하는 동안 교수회를 한번 제대로 이끌어 보자는 충 정에서 제3대 교수회장 선거에 출마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회를 이끌게 된다면 다음 과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교수회다운 교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우선 목전에 다가온 총장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도의 공명선거는 물론 최고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교수회의 위상정립에 힘쓰겠습니다. 교수회의 위상은 교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함으로써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비판과 견제, 교권보호, 권익옹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수회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함은 물론 교수회장과 총장의 정례회의, 교수회 임원진과 본부보직자들의 정례 대화, 교수회장과 단대 학장들과의 정례회의 등, 전방위적 대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규정과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학칙에 반영된 교수회 관련 규정은 2004년 통합당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측면이 없지 않기에 미비 사항을 대폭 보완하여 우리 교수회의 규정과 조직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교수회 활동예산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겠습니다. 교수회의 기능은 평의회 못지않게 산하 각종 위원회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여부는 바로 활동예산과 직결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을 상시적으로 연구하여 총장에게 입안을 요청하고 나아가 평의회를 통해 자체 발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와의 예산협의 강화는 물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와 여론수렴을 거쳐 조속이내에 회원들의 회비납부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수님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해야 할 가장 역점 사업입니다. 제가 교수회장직을 맡게 되어 3대 교수회 출범하면 곧바로 산하 교원·복지위원회를 가동해 교수님의 처우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무릇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은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향후 2년은 국립대 법인화 등 우리 대학을 둘러싼 외부의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 고경표가 교수회를 맡으면 향후 2년간 교수회가 대학본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함께 하며 우리대학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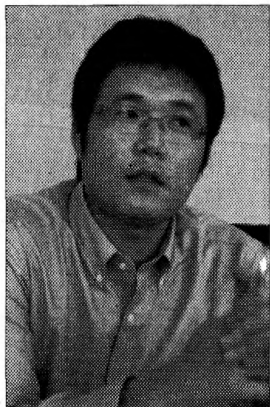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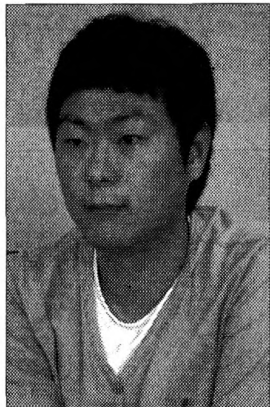
‘자질과 능력 그리고 경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정책,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마인드, 또한 발군의 추진력’이 교수회장 선출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라캠퍼스 - '전력질주'

## 총학 공약이행 중간 검증 "비교적 성실"

## 임기 동안 공약 책임감 갖고 이행해야

강동호(국어교육 4)  
총학생회장김이현(산업응용경제 4)  
사무국장김현수(응용생명자원공학 3)  
정책국장

제40대 '전력질주' 총학생회가 학생회 활동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번 총학생회는 이례적으로 총운영위를 통해 자체적인 중간 공약평가도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 자체 평가표에 초기 공약들의 여러 내용이 누락된 점은 학생들의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강동호 총학생회장, 김이현 사무국장, 김현수 정책국장을 만났다. 공약의 이행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지금부터 총학생회의 공약이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단, 등록금 분야와 로스쿨 분야, 4·3분야의 점검은 시의성 등의 문제로 실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취업분야

전력질주 총학생회는 취업분야 공약에서 총 5가지의 공약을 약속했다. 그중 특히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을 약속했던 '취업박람회'의 개최 부분은 지난 대동제를 통해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초 제주도 및 중소기업청 주관의 기업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시기상의 문제로 본래 잡혀져 있던 취업박람회 계획을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없었다는 것. 그 대신 제주은행, 다음, JDC 등 5개 기업을 초청해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실을 마련하는 등의 취업정보박람회를 대동제 기간 중 개최했다.

단체별 외부인사 초청강연을 약속했던 부분은 CNU문화강좌에 후생복지기금(2500만원)을 지원하며 그 기회를 제공했다. 또 모의시험 확대 운영과 취업적성검사와 모의면접 시행은 10월 말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과의 긴밀한 유지 관계 공약을 통해 학

생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 학사관리 분야

4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됐던 학사분야의 공약은 현재 다수가 진행 중이며 다음해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졸업학점관리시스템은 내년부터 사라캠퍼스와 통합제주대 학사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전공과 교양부분, 이수학점과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을 알아보기 쉽게 자동으로 구분되는 형식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점 적립 제도의 경우는 학칙이 개정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1학기 때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2학기에 이월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공약도 이번 주 중 중앙운영위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화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휴학 중 8학기에 한정해 6학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고사 성적공개 공약의 경우에는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초기 학칙개정으로 가능한 공약이라 생각했지만 이 부분의 경우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 중앙도서관 분야

이 분야에서는 도서관 셔틀버스,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열람상황 확인, 스터디룸 설치, 도서관납기 설치 확대 등 4가지 공약이 제시됐었다. 도서관 셔틀버스 공약의 경우는 고유가의 문제로 초기 셔틀버스의 운행 유지도 겨우 하고 있다. 당초 시험기간 중 서귀포 지역의 순

환버스를 늘리겠다는 공약의 이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신제주 노선을 확대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예산상의 문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스터디룸 설치 공약도 철화했다. 공간의 제약으로 추후 있을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 함께 진행가능 하도록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열람실 확인프로그램은 현재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도서관납기도 단과대와 연계해 경성대, 사범대, 해양대, 공과대, 수의대, 생명대, 자연대, 야간강좌부에 설치했다.

## 장애학우 분야

전문 교육의 경우에는 단과대와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인 날 장애인인권대행위에 지원금을 지원, 컴퓨터 2대 지원 등이 이뤄졌다. 또 장애인센터 건립에 따라 리모델링비(1000만원)도 지원했다. 그러나 장애인인 날 행사 자체 크지 않아 확대 운영지원 공약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장애학우의 진정한 벗 찾기 운동 공약도 다수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관련회와 연계해 도우미학생 전문교육실시 및 인식전환 운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학우 이송차량 제작도 불가능하게 됐다.

## 열린학생회 분야

이 분야의 공약은 복지국을 설치해 별도 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학생회 사무실 개편 공약으로 현재 학우 전용컴퓨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어느 학생이든 학생회를 찾아갈 경우 자유롭게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백보관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현책방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책방의 경우 장 서수가 크게 확보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음해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시험기간 아침간식 공약도 지난 1학기 진행됐으며 이번 학기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간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회 투명성 실천 공약에서 제시됐던 회계장부를 단체별로 공개하겠다고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외부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점, 약속되는 사제가 예상되는 점이 그 이유다. 그러나 공식적인 계서판 공개는 불가하지만 학생이 찾아갈 경우 모든 회계장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

쳤다.

## 학생복지 분야

이 분야의 중심 공약인 농협 ATM기기 수수료면제와 시간 연장 공약은 6월1일부터 이행됐다. 학생증 카드를 통한 학내 농협 ATM기기를 사용할 시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고 있으며 본관 내 농협 ATM기기 및 학생회관 1층 기기는 24시간 동안 연장 운영되고 있다. E마트 포인트 적립을 통한 학생회원 공약도 0.5%를 각 단체 또는 학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증을 통한 다양한 할인 추진 공약의 경우에는 제주도 내 특정업체만이 할인할 경우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당초 할인 사항 외에 더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 시험기간 중 한라를 개방 및 신관 매점 시간 연장 공약은 학내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부분이라서 공약이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 학내문제 분야

학내문제 공약에서는 순환버스 시간 연장 공약이 이행됐다. 당초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운행되던 교내 순환 버스는 그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연장 운행됐다. 오전 11시까지는 그 간격이 10분 간격으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30분 간격, 그 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학내 시설 개선 공약으로 대운동장 내 잔디구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대학 본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10억여원)을 받아 차후에 잔디구장 시설설치와 함께 비가림막, 스탠드 개보수 등이 이뤄진다. 야외음악당도 신축 예정에 있다. 현재 총학생회가 야외음악당 신축 설계비용(5천만원)을 학생후생복지기금으로 집행했으며 통합지원금 중 일부인 4억원을 본부에서 지원키로 약속 받아 신축된다. 학내 비가림막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예산 부족으로 현재 정문 앞 비가림막(설치비 3000만원)만을 설치한 상황이다. 이같은 비용은 비가림막이 도내에서는 제작이 불가하며 기둥을 하나 땅에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백두관 내 복사실의 경우 입찰 경쟁 방식에 있어 수자가 맞지 않아 유치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구내 서점 포인트 적립 공약도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건 기자

## ▶ 사라캠퍼스 - '사랑한다' 총학생회

## 제23대 총학 공약이행 낙제점

## 단독출마로 공약없는 선거가 문제

지난해 제주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의 혼란속에서 출범한 제23대 사라캠퍼스 '사랑한다' 총학생회(회장 강우람 윤리교육 3)는 대부분 공약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공약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작년에 투쟁이 크게 펼쳐져 활동이 부각돼 그런지 이번 총학의 활동은 미미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시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 원소희(사라캠퍼스 윤리교육3) 학생은 "매년 어린이날 행사, 교육봉사활동 등의 행사는 잘 마무리되어 왔으나 적당히 해서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도 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 교육위원회 설치

이번 총학생회는 교양국과 관련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사회분야의 교양을 전달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아라캠퍼스와의 통합 후 교류로 인해 경향이 없어 시행되지 못했다. 강우람 총학생회장은 이를 "임기 중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 학생문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

총학생회는 축구대회와 같은 교내의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열고 동아리나 소모임 등의 결성을 장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라캠퍼스 체육대회 때 부상자가 나오는 등 사고의 위험성으로 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했다. 동아리와 소모임 결성장려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되었고, 학우들의 반응이 없어 만들지 못했다'고 답했다.

## 의사소통 위한 클럽 활성화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클럽을 만들어 활성화 한다는 취지의 이 공약도 지켜지지 못했다. 총학생회장은 "투쟁 때는 활성화되었으나 그 외에는 과별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 학생자체 강의평가 실시

총학생회는 2004년도에 선배들이 교내 자체적으로 강의를 평가했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 총학생회장은 "사라캠퍼스가 소규모이다 보니 교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질까봐 강의평가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 핸드타올, 야외벤치 설치 등 기타 사항

총학생회는 핸드타올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캠퍼스 야외에 앉아서 쉴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야외벤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핸드타올은 사라캠퍼스의 모든 화장실에 설치되었고 야외벤치 증설계획안을 학교에 제출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사라캠퍼스 총학생회의 공약(公約)의 공약(空約)화는 총학생회의 내부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라캠퍼스가 오랜기간 동안 가져온 자체적 문제 때문에도 기인한다.

김민호 교수(교육학과)는 "공약이라는 것은 후보자간에 비교를 통해서 정책대결을 하는 것인데, 사라캠퍼스에서는 후보자가 한 팀만 나오기 때문에 그 취지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물만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선거를 할 수 있어야 총학생회가 주어진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강우람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지적을 인정하며 "이전 총학생회선거 때에도 공약이 없기 때문에 전례를 답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또 "남은 기간 동안 학술제와 앞으로 교육대학 총학생회의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남아있다"며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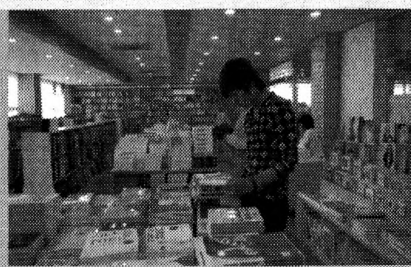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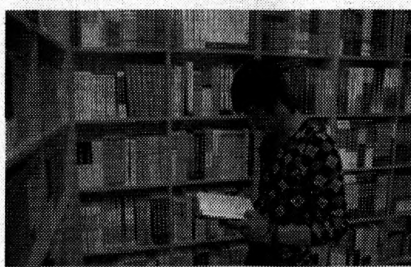
강 회장은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통합을 했으면 그 후의 문제들도 교수님들이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학생회의 존립문제 또한 교수님들이 나몰라라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수습기자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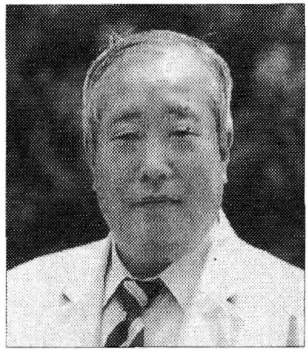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구내서점

문의: TEL 754-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 제주 해민정신의 상징, 탐라선 원형에 대한 논쟁고

# '제주 덕판배 원형 아니'라는 주장은 진실 왜곡 탐라선 원형 연구 위한 프로젝트 기획해야



송성대  
(사회교육과 교수, 대학원장)

이 글은 소위 '덕판배'라는 전통 제주 배의 해체를 기획한 <국립제주박물관>과 이의 용역을 맡은 <경담문화연구원>(소장 김익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론의 대상은 김익주 소장과 인터뷰한 <제주의소리>의 기사 내용(2008년 07월 15일, 김봉현 기자)들로 했다.

문제의 덕판배는 1996년 <KBS제주방송 특종>이 제주대박물관에 의뢰, 고(古) 김천년용에 의해 제작(再作)되어 <제주대 박물관>에서 관리해오다가 2001년 국립제주박물관으로 이전 관리되어 왔는데 목재재를 무려 12년 동안 가림막 없는 야외에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문제가 야기되자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도 아닌 박물관들이 그러했다.

기자 질문: '덕판배' 조사용역을 맡은 공주의 경담문화연구원 소장 김익주 소장은 기자와의 첫 대면에서 현재의 복원 덕판배에 대해 "원형 덕판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송성대 교수: "원형 덕판배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데 '원형'에 대한 진위 판단은 원형이 존재할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조선공의 기억(생애사) 속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준거의 대상이 없음에도 해체 주장이 원형이 아니냐고 단정하는 것은 해체의 정당화를 위한 진실 왜곡이며 핑계에 불과하다. '복원'이라는 용어도 오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복원학 전문가 김주삼의 말대로 복원(restoration)이란 원작(original)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훼손유실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남아있지 않은 작품을 새로 짓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재건(rebuilding, 重建) 또는 재작(再作, reproduction)이라 해야 한다.

김익주 소장: "덕판배는 '덕판'이라고 하는 배 앞머리에 놓인 구조물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이 '덕판'은 전통 한선의 구조다" "사실은 덕판구조는 우리나라 전통 한선에서 보편화된 전형적인 구조물이다"

송성대 교수: 옳은 말이다. 1996년 문제의 제주배를 제작한 후 중론을 거치지 않고 <제주대박물관> 관계자 몇 명만에 의해 즉흥적으로 제주배의 이름을 정해 버린 결과다. <조선왕조실록>에처럼 '제주선'이라 하든지 아니면 '탐라선'이라 했어야 했다. 필자는 '탐라선'을 주장한다.

김익주 소장: "굵은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 선수가 곡면을 이루도록 한 전통한선과 달리 덕판배 복원품은 작은 통나무를 반으로 붙여 그지 반듯한 선수를 갖추는 등 한선의 특징을 가진 배라고 보기에 어려웠다. 닻 역시 선박의 규모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작았다."

송성대 교수: 갯벌바다에 적응한 한선의 닻은 하도 크다보니 물레에 의해 닻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제주를 돌바다이다. 작은 닻도 수이 기능을 발한다. 또한 뱃머리(이물)의 상하로 내리는 선이 활모양의 곡선이 아니라 직사선(直線)이기 때문에 한선이 아니라고 한다. 왜 제주배가 한선이라야 하는가? 제주배가 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 제주배들은 사람이든 화물이든 측면(側面)이 아닌 뱃머리를 발판삼아 승하하는 과정에 뱃머리의 상단이 길게 나와 직사선이 된 것이다.

김익주 소장: "재료도 엉뚱하다. 삼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복원 당시인 1996년 시점엔 고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덕판배가 한라산에서 나오는 구상나무로 만들어졌다는 문헌기록을 보더라도..." "바다에 띄우는 배에 쇠못을 사용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송성대 교수: 김용은 실제로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이용해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했다. 그럼에도 구상나무 아닌 일본종 삼나무를 쓴 이유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구상나무의 채취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선박제조에 쇠못 아닌 나무못(피새)을 써야한다는 것 역시 60여년을 조선공으로 살아온 김용이 모를 리 있겠는가. 제작된 제주배(덕판배)는 전시를 위해 단시간내에 염가로 만들어진 일종의 미니어처임을 알아야 한다.

김익주 소장: "지역을 막론하고 한선의 공통분모가 있다. 전통한선의 평저형 바닥도 그중 하나인데 복원 덕판배는 브이(V)형이다. 1920~30년대 일본선박 구조 방식이 만연할 때 개량됐을 것 같다" "유독 제주에서는 덕판배라는 명칭으로 의미나 부각됐지만 사실은 덕판구조는 우리나라 전통 한선에서 보편화된 전형적인 구조물이다."

송성대 교수: 탐라선의 V형 용골구조야말로 제주배의 ID다. 선박이라는 구조물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운용은 환경에 따르고 형태나 재료 또한 그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옛 제주인들은, 한선은 바닥이 '자형'이라 '널창이배(平底船)'라 불렀고, 화선(和船)은 밑창이 V자형(尖底船)으로 빠르기는 하지만 깨어지기 쉽다하여 '박세기배'라 불렀다. 제주배는 기능면에서도 겸선(兼船+商船)으로서 빠름과 튼튼함을 취한 중간형의 전통배였다. 조선 성종 때에 튼튼하고 빠른 병선을 만들기 위해 한선, 화선, 탐라선의 속도실험(경주)이 있었는데 제주배는 항시 2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익주 소장: "말을 진상하는 진상선으로 쓰일 만큼 역사 기록에 나오는 덕판배라면 복원된 덕판배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지금처럼 배 갑판(甲板)이 높게 올라와 있다면 말을 싣고 원거리 항해는 절대 불가능하다"

송성대 교수: 제주인들이 한선을 '널창이배(평저선)'라 불렀다면 갑판이 있는 탐라선(덕판배)은 '너장배(板床船)'라 불렀다. 탐라선이 너장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능상 결점이기 때문이다. 너장(甲板)이 있어야만 '왕조실록'에 빈번히 언급되다시피 해상유목민들이었던 제주 해민(海民)들이 '배를 집삼아 살 수 있었다'.

주 해민(海民)들이 '배를 집삼아 살 수 있었다'.

오페르트는 "조선 어선(한선)은... 그 많은 솜씨가 조잡했다. 밖의 판장은 나무못으로 서로 짜여져 있고, 짜서 만든 자리로 뚫을 삼았다. 대단히 길기는 하나 갑판(너장)이 없고, 하나씩 떨어져서 옆으로 놓여 있는 배들 뿐이었으며, 선실에는 덮는 것이 전혀 없고 잠은 물고기는 그 안에 그대로 던져 진다"라 했다.

김소장과 <국립제주박물관>측은 귀중한 탐라선을 해체함에 신중함이 있었다면 최소한 탐라선(덕판배) 제작 후에 실제로 말(馬)을 싣고 운항하는 비디오 자료(KBS자)라도 보았어야 했다.

기자 질문: 박물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앞으로 전통적인 덕판배에 대한 고증을 더해 복원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원품은 부재별로 해체 보존처리 후 분리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성대 교수: 재작 탄생했던 탐라선(덕판배)은 그들의 뜻대로 2008년 7월 29일 해체되어 현재화되고 말았다. 언론들에서 지적했듯이 남의 나라 배(산자천변의 중국배, 산방산 자락의 네덜란드 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작 전시하면서 탐라 조상의 얼이 깃든 제주배에 대해서는 홀대했다.

"덕판배의 복원품이 원형이 아니다"라 단정하면서 해체 복원품을 영구보관하겠다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논리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당사자가 논쟁의 결말을 위해서라도 조만간에 탐라선 원형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실천하고 명실상부한 탐라선의 재탄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주국립박물관 야외에 전시하다 지난 7월 29일 해체해 버린 덕판배

출처=제주의소리

일본인 눈에 비친 재일동포들의 삶의 풍경

'재일 제주인의 과거와 현재' 사진전

일본 오사카 제주도연구회 주최



이시카와 이쿠코 씨의 사진 '교토 히가시쿠조 한마당에서'

탐라문화연구소(소장 허남춘)와 일본 오사카 제주도연구회가 주최한 '재일 제주인의 과거와 현재-오사카 프루하시의 삶' 사진전시회가 지난 5일과 6일 학생회관 로비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마련됐다. 전시 후 이 작품들 전부는 재일제주인센터에 기증됐다.

사진전은 일본인 이시카와 이쿠코 씨가 일본 오사카 프루하시 한민족을 비롯해 이 일대를 돌며 재일제주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 20여점을 선보였다.

이번 사진전에서 작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제주인들의 눈빛과 웃음을 통해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사람과 우정을 전하고자 했고, 이들의 삶과 현실을 카메라에 차분하게 담았다.

사진전의 주된 배경은 오사카 시내 프루하시 역주변, 코리아타운 해질녘, 코리아타운 공생축제, 축제 날 점포 앞에서, 정육점 부부, 재일동포 2세 부인 등 이쿠코씨는 연출되지 않은 일상의 풍경들과 작가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피사체에 담았다.

작가는 재일제주인들이 편안히 느끼는 순간들을 영글에 담고 싶었다.

이곳 오사카 프루하시에는 100여 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고, 가게 주인의 60%가 재일동포이다.

간판은 일본어가 많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김치는 물론 인절미, 약과 등의 떡과 다양한 부침개, 순대 등 한국음식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코리아타운 거리로 정착되면서 한국문화 이해하려는 일본 학생들의 답사도 이어지고 있다.

작품안의 풍경은 재일제주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인 시장 일대와 오사카 시내의 풍경들로 그 모습들에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의 순간들이 존재한다.

교토 히가시쿠조 한마당에서 아빠의 목마를 타고 있는 해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의 모습, 금강학원 운동회, 리허설 도중에, 순서를 기다리며, 삼급행, 재일동포 2세의 남쪽, 선조의 조령을 전하는 신방, 선조공양을 위한 굿 등 재일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쿠코 씨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런 모습들 중에 왠지 모호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보고 대할 수 있는 평범한 모습 중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순간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쿠코씨의 사진 작품이 전시되는 동안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재일제주인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정용복 대기자

제주대학총서110

제주의 건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학술적 접근에 의해 정리되지 못한 채 보고서나 임산적인 자료집의 형태에 머물렀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 도시건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대부분 전통 민가건축에 국한된 것이었다.

현대에 들어서 개발논리 아래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시의 생활공간과 건축적 양식, 그리고 제주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왔던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도시, 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자 한 것이 내내 제주도시건축을 이야기하기 하다이다.

제주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자 문화적 지표인 도시건축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다.

여러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분류하고 정리는 하였으나 내용이 다소 중복적일 수도 있고 가벼운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격조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 오랫동안 간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서의 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본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이 넓게 이해해주시라 생각한다.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김덕일 저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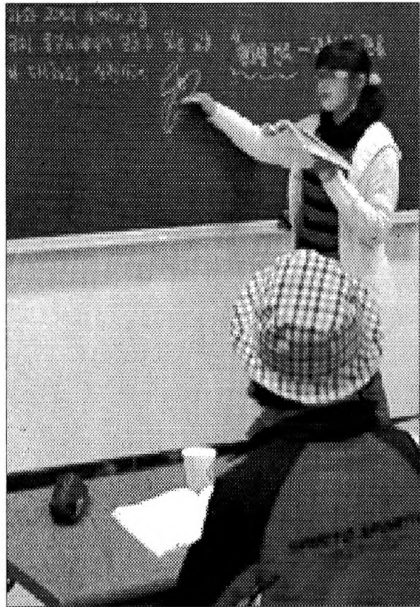
김덕일 저

제주대학교출판부



# 특기 · 재능 살린 훈훈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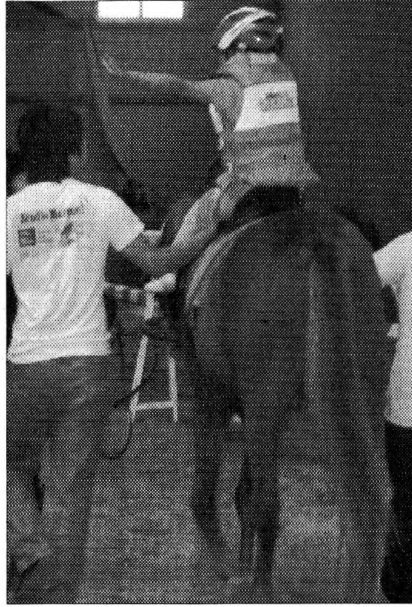
## ‘아라봉사단’ 등 활동 통해 ‘구슬땀’ 의미 되새겨



동려회 학생이 아라봉사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라봉사단 학생이 양로원에서 어른들과 함께 만들기를 하고 있다.



재활승마장에서 대학생이 어린이가 다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

대학생의 문화가 변하고 있다. 그저 영화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봉사활동’이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문화는 다른 봉사활동과는 사뭇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대학생들만의 봉사활동은 어떻게 다를까? 그럼 그들의 봉사활동을 알아보자.

직업능력개발원에 소속돼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지는 아라봉사단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재활교육봉사, 독서교육, 미화정리, 한라산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아라봉사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강미라(법학과 3) 학생은 “아라봉사단 활동을 통해 외부에 나갔을 때 단순한 사설 동아리가 아닌 ‘제주대’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만큼 스스로가 제주대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며 “지역사회의 각 외부기관과 연계한 활동이 이뤄져 제주대인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라봉사단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재활교육봉사와 독서교육. 강미라 학생은 “재활교육봉사활동은 제주정신요양원에 가서 매월 2회씩 환우와 함께 클럽활동을 하며 12월에는 연말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라봉사단의 다른 활동으로는 독서교

육활동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서교육활동은 매주 3회씩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책임어주기, 독서교육을 통해 방임아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봉사활동과 달리 특색 있는 봉사활동도 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뤄지는 여러 프로그램 중 ‘재활승마’가 바로 그것이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 외에도 레고, 난타, 댄스 등,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활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재활승마프로그램은 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말’을 통해 치료하는 것인데,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장애아동들이 탄 말 옆에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사이드 헬퍼)을 맡는다.

임준석(한국재활승마협회 제주지회장) 씨는 “뇌병변 아동들의 쓰여지지 않던 근육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 줌으로써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 때 사이드헬퍼 역할을 맡는 자원봉사자들은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활동에 참여하는 박연아(한라대 사회복지학과 1) 학생은 “아무래도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여서 봉사활동을 좋아하게 됐다”며 “여러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아동들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더 해보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임 회장은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장애인아동을 감안할 때 하루 4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아직 인원이 부족해 금주 부족한 실정”이라며 “만약 대학생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뤄지는 이 봉사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하는 마음에 대한 배려로 기초승마를 배워주고 있다. 아직 자원봉사자의 수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더 모집하고있는 중이다.

특이한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열정을 담은 봉사활동도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는 동려회, 학습 멘토링, 공부방, 민들레학교 등 많은 단체가 존재한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 미래에 뜻을 둔 봉사활동임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교육대학의 동려회는 20여명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동려회에서 활동을 드물게 하는 학생은 한 학기에 1~2회, 자주 활동하는 학생은 일주일에 2시간 2회 이상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성은(교육대학 체육교육과 3) 학생은 “초등학교 특수반 보조교사 봉사활동,

동려 평생학교 교사, 영지학교, 정신요양원 등으로 가고 있다”며 그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했다.

강성은 학생은 자신들의 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 “많은 봉사 동아리가 있지만 동려회는 미래 교사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며 “배움에 목마르신 어른 분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알은 지식으로나마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 매우 보람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려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중고교 재학생처럼 봉사활동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니 좀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불경에서는 ‘베를어주며 베를어준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경우엔 베를어 주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련이다. 나는 이정도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연연 중에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베를 때 베를었던 자신을 잊고 더 열심히 행한다면 자신이 행한 봉사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한 봉사’, ‘이력을 위한 봉사’보다 ‘뜻을 위한 봉사’, ‘사람을 위한 봉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강소진 기자

### 제8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지킴이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허물 수 있었다”

불교청소년연합회는 장애인과 도민들과 함께 지난 7일 문화유적답사를 떠났다.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4·3 유적지와 해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답사했다. 답사단은 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고 4·3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도착하자마자 4·3에 관한 만화를 감상했는데, 이 영상은 제주어로 만들어져 상황을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관으로 향하는 길은 ‘굴’로 만들어져 있어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문화해설사는 “당시 제주인들이 땅굴생활을 하면서 진압군을 피해 지내던 모습을 체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렇게 건축했다”고 말했다.

‘제주4·3의 이해’라는 강의를 듣기에 앞서 사전공부를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고현우(건축디자인 2) 학생은 “‘죽음의 섬’에 전시된 작품들은 당시 제주인의 죽음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고 이는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관람객 참여코너인 ‘소원지 벽’에는 누구든 방명록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적힌 방명록을 읽으면서 4·3이 제주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관심도 함께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답사단은 복촌으로 이동해 너른 숨이 유적지를 돌아봤다. 문화해설사는 “작은 무덤들은 모두 아이들의 희생”이라며 “이는 진압을 넘어서는 학살”이라고 말했다.

4·3일정을 마치고 답사단은 제주하면 떠오르는 ‘해녀’를 이해하기 위한 일정을 떠났다. 해녀박물관

관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제주의 어머니인 해녀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을 관람했다. 서영초(국문과 4) 학생은 “영상을 통해 잘 알지 못했던 제주의 해녀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제주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해녀영상은 매우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해녀박물관에서부터는 장애인분들과 일정을 같이했는데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들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답사단은 장애인에 향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답사단이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서로에게 조용하자고 얘기하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문화해설사의 말을 꼼꼼히 메모하던 진연주(제주여중 1)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허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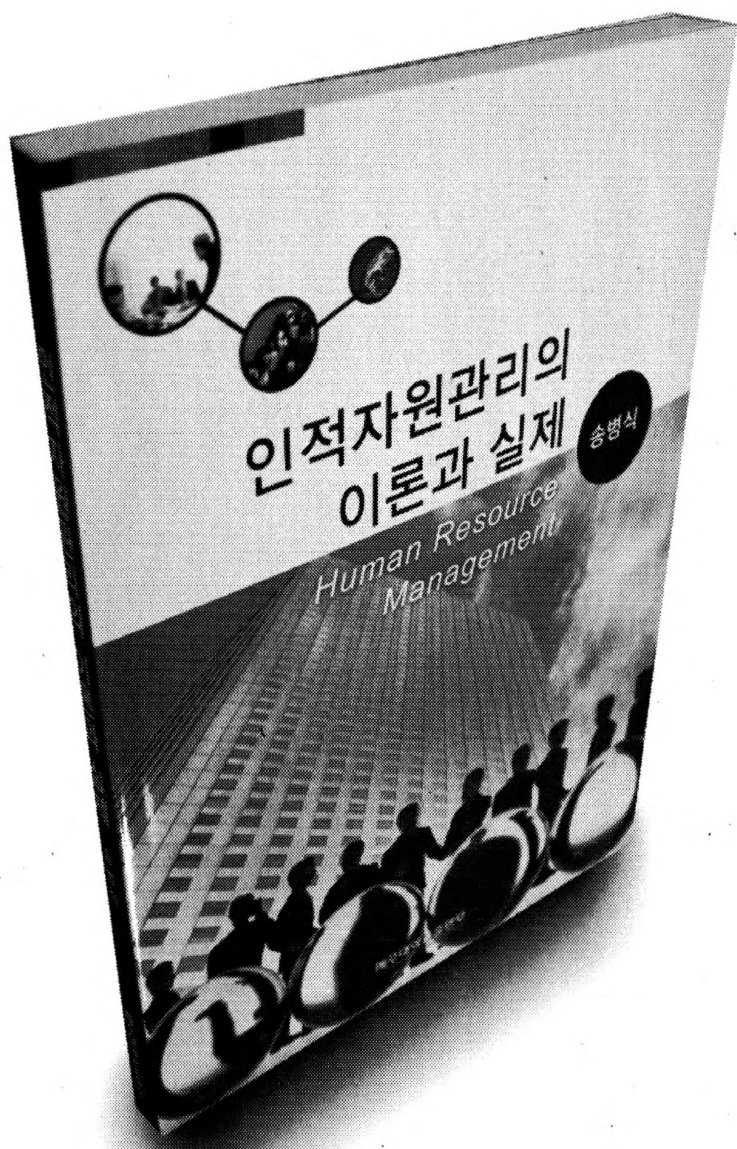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4·3과 해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획의도와 달리 오랜시간동안 장애인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사람들은 때때로 ‘장애인’이라는 벽을 세우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이번 기회는 어쩌면 그 ‘벽’을 깰 수 있는, 장애인이 우리와 다른 이들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할 4·3과 해녀에 대해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갔다.

강소진 기자



지난 7일 진행된 답사에서 장애인·비장애인 학생들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인적자원관리의

Human Resource Management

## 이론과 실제



송병식 지음

현대를 가리켜 흔히 ‘창조시대’라고들 한다. 일본의 하자들은 벌써 몇 십년 전부터 정보화 시대를 올 것이면, 그 사회는 창조적 지식이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쟁과 창조경영에서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처럼 시대를 앞서 예견하고 그 시대를 준비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정보화, 지식, 창조 모두가 함께 결합하여 빠르고 크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창조시대는 무엇보다 창조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창조능력이 중시된다. 창조시대는 창조경영과 창조조직, 그리고 창조적 인적자원관리를 낳는다.

창조는 무한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피터스(T. Peters)에 따르면, 미래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보다 부정확하며 무질서한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과감하고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경영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상상력이 덕목인 사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가 16,000원



무문유설

##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다시 생각한다



최규일  
국어교육과 교수

우리 역사에서 '건국'이란 단어 표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오천년(한반도)의 유구(悠久)한 역사(헌법 전문 첫구절)에서 볼 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또는 '건국 60주년 기념'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 한 마디로 이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가 역사 서술(敘述)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뜻의 '건국(建國)'이란 말은 한 국가의 역사에서는 한번이면 족하지 두 번 사용의 건국이란 표현은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이든지 '건국'은 한번뿐이지 두 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60년'으로 표현하여 단정해버리면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짧아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오랜 고대 전통의 역사가 강그리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통성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한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잘못하면 '잃어버린 5천년'이 될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언론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란 표현을 흔히 자주 쓰는데, 이는 재고(再考)하여 시정 조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에 "문화로 즐기고 통하는 건국 60년"이란 글에서 "8월 15일 건국 60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표현에서도 여기 '건국'이란 단어는 안 어울린다.

실은 근래 '건국'이란 말 사용은 지난 DJ 정권이 내건 '제2의 건국'이란 말이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 '제2의 건국'이란 구호를 내걸어 행정부에서 '제2의 건국'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어느 누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자유지만 일국의 국가를 내세울 때는 용어 사용에 신중했어야 한다.

이를 떠낸 우리의 8·15 국경일을 '해방절'이라 하지 않고 '광복절'로 부르는 이치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 맞는 8·15 경축일을 '8·15 해방(解放)'이라 했을 때와 '8·15 광복(光復)'으로 했을 때 그 뜻이 다르다. '8·15 해방'이란 말에

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남(강대국)의 도움으로 구속이나 억압에서 풀려났다는 수동적 의미가 담겨 있다. 반면에 '8·15 광복'은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광복'에는 우리 선조들(독립군)이 목숨을 바쳐 가려 나라를 되찾았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를 '건국 60년'으로 보는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임정(臨政)의 법률을 이어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임정은 주권, 영토, 국민을 갖춘 정식 국가가 아니었기에 '건국'을 준비한 임시정부의 구성을 '건국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실질적인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이뤄진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 공화제가 탄생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다." 이와는 달리 "건국의 기점을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쟁들의 언어 사용에서 '건국'이란 단어 사용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된다. 논쟁들의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다. 이런 식의 논쟁은 정권의 흥망에 따라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역사를 바라보고 양쪽을 심판하는 국민이 더 많아야 할 때다. 달리

말해서 언어와 역사 기술(記述)에서 '철학 부재(不在)'의 빈곤에서 오는 근시안(近視眼)적이고, 표피적(表皮의)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60년'과 '대한민국 건립 60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말에서 '건국'과 '건립', 또는 '정부 수립'은 그 뜻(개념)이 엄연히 다르므로 잘 구별해서 써야 한다. 활력소(活力素)를 불어 넣기 위해서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건국(建國)'이란 단어 남용(濫用)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들이 평소에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적에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말고, 우리들의 언어 감각을 길러 적절한 단어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 보다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 표현이 되도록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기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과 정부에서 '한반도(韓半島)'란 말 사용은 피해 주었으면 한다. '한반도'란 '한국이 반 섬(半島)'이라는 뜻으로 일본의 저의가 담긴 일본식 말이다. 이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언어 유산이다. 이를 떠낸 "한반도 기"를 들고 선 수들이 입장한다."는 중계어나 서의 말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본식의 언어 표현들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 사설

### 사이버 게시판을 생산적 토론의 장으로

대학은 그 사회의 이상을 꿈꾸는 곳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수가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고, 교수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슬퍼런 7,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는 대학에서도 말 한 마디, 글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적도 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으로 새벽에 남몰래 글을 써야 했고, 그것을 발설하거나 공표하는 날에는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당시 대학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담배타에 게시되는 '대자보'였고, 그것도 삼십분도 채 못 되어 누군가에 의해 찢겨나갔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전자메일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말하고 쓸 수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때로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무절제하게 토해내고, 서로에게 비판이 아닌 비난의 화살들을 쏟아냄으로써 읽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어느 조직보다도 대학에 자유가 넘실대는 이유는, 대학이 현실비판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사회를 열어가도록 압목적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은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높은 신분을 지닌 이는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높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원칙은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한인들은 특권적 자유를 창의적 사고와 연구에 사용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전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뜨거운 논쟁과 비판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 싸움이나 상대방을

흔집 내기 위한 비난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이버 게시판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이전투구를 벌임으로써 화합에 금이 가고, 학교 이미지에 손상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지만 감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논이해시키고 마음으로는 감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집단의 논리가 적용되거나,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다보면 자칫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거칠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 나아가 대학 전체의 이미지도 실추되어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토론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에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학 전자문서 게시판의 경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사이버 게시판도 공적인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토해내기보다는 합리적 제안과 논리적 비판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건설적 의견들이 올라오던 게시판이 선거철이 되었다고 해서 교수와 직원, 후보자와 후보자 간에 서로에게 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곳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다가오는 총장 선거는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게시판은 보다 생산적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자유와 창조의 전당으로서 거듭나는 우리의 저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자수첩

## 총장 선거 앞에 침묵하는 학생 권리

지난 5월 대통령 때 기지는 제주대 출신의 한 직원과 술자리를 같이할 기회가 있었다. 제주대 구성원 모두가 흥겨운 시간인 만큼 다수의 교수와 직원들도 주점에서 학생과 어우러졌다.

기지는 현장에서 그의 대학 시절과 그가 바라는 대학, 그리고 학생들과 신문사에 바라는 점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오고간 대화 중에 더욱 그 의미가 상기되는 주제가 있다. 대학의 장을 뽑는 총장선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또 제주대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의 민주화는 대학의 3주체 모두가 대학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장을 뽑는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요체였다.

최근에 와서 다시금 그 일이 마음속에 불거지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 얼마전 직원들이 선거권 확대를 위해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취재하게 된 것이다. 총장임용자 선출 규정 공청회, 총장선거권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등이 바로 얼마 전 열렸다. 취재를 하며 공무원직장협의회며 대학노조와 함께 움직이는 직원들의 권리 요구를 위한 움직임은 참으로 인상 깊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과 그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은 학생들에게 총장선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이며 그 정보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권

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총장선거에 대한 학생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학생회장마저 침묵으로 일관해야 하는가. 제주대 학생대표로서 진보된 사고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대학의 장을 뽑는 자리에서 당연히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대학의 공익 및 운영을 위한 사람에게 직접 그 자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대, 경상대, 강릉대, 부경대 등 많은 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당연히 총장선거 참여를 이뤄냈다. 언제까지 우리대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학생은

뒷전이야여 하는가. 이번 총장선거도 과거와 같이 그냥 지나게 된다면 학생들의 참여방법에 대한 요구 기회조차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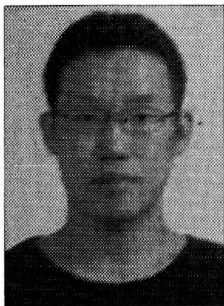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지난 22일 총학생회가 교수회 및 교무처 등 학내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총장선거에 있어 선거권을 요구하겠다고 본지에 전한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장선거, 학생의 권리실현을 기대해 본다.



박준건 기자  
park12@cheju.ac.kr

독자기고

## 대학통합 합의 충실히 이행해야



오상묵  
교육대학 교육학과 4

신 교수님들, 그리고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통합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에 저항했던 학생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반목과 미움, 실망 등이 우리 내부에 응어리진 채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제주도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소로 보인다. 통폐합, 영리병원 등 각종 정책들이나 행정적 시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교육에서도 '경쟁과 효율'이라는 모토가 우선시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제주도의 변화도 사람을 우선시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학의 물리적인 면으로 보면 로스쿨과 의화전문화원, 게다가 교육대학까지 통폐합을 한 제주대는 매력적인 대학교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상의 변화일 뿐이다. 떨어져 있던 것을 붙이고 덩치가 좀 커졌다고 해서 그 대학이 훌륭한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력이 커졌다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주대학교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의 변화로 교육대학이 통합된 상황에서 교육대학의 주요 결정권은 제주대학교 총장님의 권한으로 넘어갔다. 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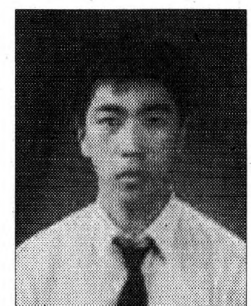
게 활용하실지 그 분의 현명한 판단과 태도를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의 학생으로서 제주대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통합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한다. 그것은 통폐합 대학간의 신뢰와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의지로 체력 있는 대학으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모교 상실에 대한 제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 제주대학교의 발전과도 연관된 길이다. 필자는 체제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키우는 일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교육은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의 기본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학교가 중요하다. 이것을 꼭, 제주대학교의 행정가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reality)인 것이다.



김관현  
전기공학 3

지난 9월 7일 일요일 '지역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매년 지원자에 한해 열리고 있는 이 지역문화탐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제주의 대표적인 곳을 견학하여 배우고 느끼는 행사인데, 올해는 제주의 대표적인 두 곳,

4·3 평화기념관과 해녀박물관을 견학하게 되었다

4·3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아픔의 역사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실을 찾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는 그저 먼 판나라 얘기이고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소소한 얘깃거리로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평화기념관을 둘러보는 와중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4·3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면서 어쩌면 이 사건은 민족 분단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기념관에서 사실성 있게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장면을 봤을 때

는 '저런 일까지 있었나'하며 작중을 놀라기도 했다.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들의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평화기념관을 나왔다.

다음으로 도착한 해녀박물관에서는 그 시대 제주 여인들의 강인한 정신뿐만 아니라 착박한 제주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노력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옛 사람들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이 기회에 주어

진 것이라 느꼈다.

이 두 곳을 견학하면서 내가 가장 마음 속 깊이 느낀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생명이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견학을 마치고 제주시와버스타미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픔과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 온 제주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싸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여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으려 합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 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활동 체험기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게재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ju88@chej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cheju.ac.kr



◆ 미주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고문·국제펜클럽 미주지역연합회 창립회장 전달문씨

# “문학에 대한 열정 끝없어”... 초기 이민문학 일군 1세대

## LA에 ‘문학의 집’ 완성하는게 남은 일생의 꿈



50개의 주와 14개의 해외연방. 면적 951만 8323km<sup>2</sup>의 어마어마한 대륙이자 국경 안에 5시간의 시차가 나는 나라, 전 세계 인종이 두루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땅이다. 그 넓고 낮은 땅에서 우리민족의 고유한 언어로 시를 짓고 소설과 수필 회화 등을 쓰면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문학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 전달문씨가 있다.

그의 출생지는 평양이다. 1·4후퇴 때 부친이 제주로 피난 와서 제주시 동문동에서 ‘전 의원’을 개업했다. 복고-피난 중을 나왔고, 1958년 오현고(6회)를 졸업했다. 그리고 중앙대 문리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시절에는 서울 오류동에서 현경대 전 국회의원과 오윤석 변호사 등과 자취생활을 했다고 한다.

### ■ 이민문학의 선구자

1938년생으로 올해 고회를 맞이한 전달문(70)씨는 미주한국문학의 선구자이다. 그는 지난 1981년에 미국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도미 2년 후인 1983년부터 ‘U.S Korean Business Times’라는 신문을 창간했으며 발행인으로 1987년까지 운영한 뒤 폐간했다.

그는 또 1982년 9월 ‘미주한국문학협회’를 창립했다. 협회는 김영환씨가 이사장에 송상욱씨가 회장으로 선출되며 운영된다. 그는 이 협회에서 편집인을 맡았으며 그 외에도 박남수, 한갑주, 이세방 사진작가가 창립멤버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협회는 발전을 거듭해 ‘미주문학’까지 창간하게 된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당시에는 한국 출신 문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2년 12월에 이민문학의 호시인 ‘미주문학’을 창간하는데 당시 하와이에 있는 구상 선생을 LA에 초대하여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87년도에는 ‘재미시인협회’를 창립한다. 전씨는 협회에서 회장 직을 맡으며 ‘외지’라는 작품집도 발간했다. 이 작품집은 20회를 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후 1997년에는 ‘재미수필문학가협회’도 창립하여 고문역을 맡으며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도미한 후부터 줄곧 문학에 열정을 쏟은 전달문씨. 그 열정은 다수의 문학인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2006년 9월에는 그 공로와 문학적 감각을 인정받아 ‘재미시인협회’의 제 4회 ‘재미시인상’을 수상했으며 국제펜문학상, 오늘의 신인상, 순수문학상 등도 함께 수상했다. 그는 현재 미주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국제펜클럽 미주지역연합회 창립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예림원’이라는 출판사 대표직을 맡고 운영하고 있다. 많은 나이에도 그의 문학에 대한 끝없는 뜨거운 열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 ■ 그가 짝사랑한 곳, 우도

그는 남가주주향토포 창립이사로 회칙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제3대 향토포 때는 이사장을 역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우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6명을 초청해 LA견학을 주관하게 된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모두 우도에 기증했다. 우도면사무소와 연평중에는 전씨가 쓴 시화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

“지난 2004년 우도를 방문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차와 사람들, 더 이상 내가 그리워 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가 관광단지에 구경 온 관광객 같았습니다. 내가 짝사랑하던 우도, 그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섬뜩한 표정을 짓는 그. 관광지조 전락해버린 우도를 보며 안타까워했을 그의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진다. 그러나 그의 우도에 대한 실망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애정으로 변했다. 그는 곧 “우도에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우도에 묻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죽어서도 우도에 묻히고 싶다는 전달문씨. 그의 우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자식들이 ‘성묘를 어떻게 하느냐’며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은 단지 자신의 욕심”이라며 웃었다.

전씨의 자녀는 2남 2녀이다. 큰아들 전승휘(스티브 전, 40)는 UC 샌디에고 경영학 박사학위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한다. 며느리 또한 교수이다. 둘째 에드워드 전씨는 UC버클리대 법대와 로스쿨 출신으로 미국로펌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 삼성물산의 해외업무 담당 변호사로 한국에서 근무 중이다. 에드워드 전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 그의 작은 소망

그는 지난 1997년 귀국해서 제주문인들을 만났고 오현고 출신 글림문화회 동인들도 만났다. “상금이 없어서 ‘글림학생문학상’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5회까지 매년 2천불씩 상금을 송금했다. 이제는 ‘글림문학상’도 ‘글림학생문학상’도 자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그는 문학작품 창작에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이민문학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수많은 작품을

남긴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작은 소망이 남아있다. ‘문학의 집, LA’를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민문학가들의 욕필원고와 유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는 전달문씨는 “이를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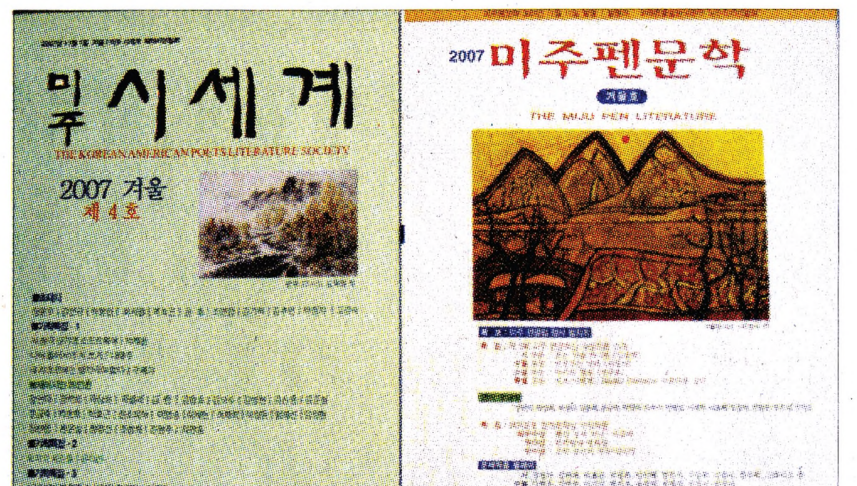
### ■ 멀리서 바라보는 제주

그는 제주도 토박이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제주토박이 만큼 제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제주인이라는 긍지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긍지는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에서 출생한 하여 타지에 넘어와 제주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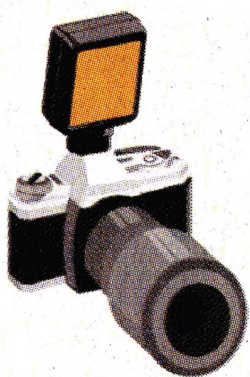
그는 “평양은 나의 태생지이고, 나의 고향은 제주”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고향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고향, 제주는 단순히 자란 곳이 아닌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된 그리운 곳이다.

그는 지금도 그리운 제주를 품고 자신의 문학에 대한 꿈을 가슴속에 그리고 있다.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미숙 기자



전달문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예림원에서 출판한 『미시 세계』, 『미주펜문학』



## 제주대신문사 ‘56기 수습기자’모집

“ 제주대신문사에서 완벽하고 소중한 당신을 제56기 수습기자로 모십니다 ”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구 미국, 일본, 중국, 광주, 백두산 등 취재)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기회 제공)

전자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매킨토시기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까지)

매킨토시를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08학번 학생

장 소: 본관 동쪽 직업능력개발원 제단 3층에 위치

언론출판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의: 제주대신문사(754-2279, 010-6776-8277)

